

이달의 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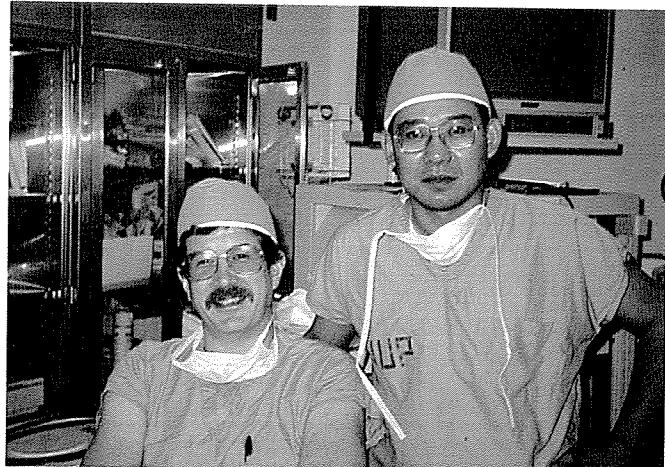
축농증 치료연구 공헌

서울대의대 閔 陽 基 교수

「자연공 개방술 치유효과」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1월 초순, 본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서울대 의대 민양기(閔陽基·48)교수를 만나보았다. 민교수는 비과학(鼻科學)분야의 생리학, 진단학, 병리학, 면역학, 약물치료학, 수술치료 등에 관한 임상 및 기초의학의 우수 논문들을 모아 출간하는 네덜란드의 국제학술지인 「International Rhinology」에 발표한 「가토(家兔·집토끼)에서 실험적으로 유발시킨 부비동 염(副鼻洞炎·축농증)에서의 자연공 개방술의 치유효과」로 금년 봄 과총에서 선정, 수여하는 제4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부비동염(축농증)은 부비동(副鼻洞)에 고름이 괴는 콧병의 일종으로서 부비동염의 병인론적 요소로는 부비동 자연공의 폐쇄, 점액 섬모장치의 기능저하, 부비동내의 산소교환 장애 및 부비동 점막의 혈류 이상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 부비동 자연공의 폐쇄는 급성 및 만성 부비동염의 발병기전의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왔다.

동물실험 비교분석

이 논문은 자연공의 개방상태가 부비동염에 미치는 치유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32마리의 토끼를 대상으로 자연공을 폐쇄시킨 후 스트렙토코커스 뉴모니아(Streptococcus pneumoniae)를 접종함으로써 부비동염을 유발시켜 자연공을 개방했을 때와 폐쇄했을 때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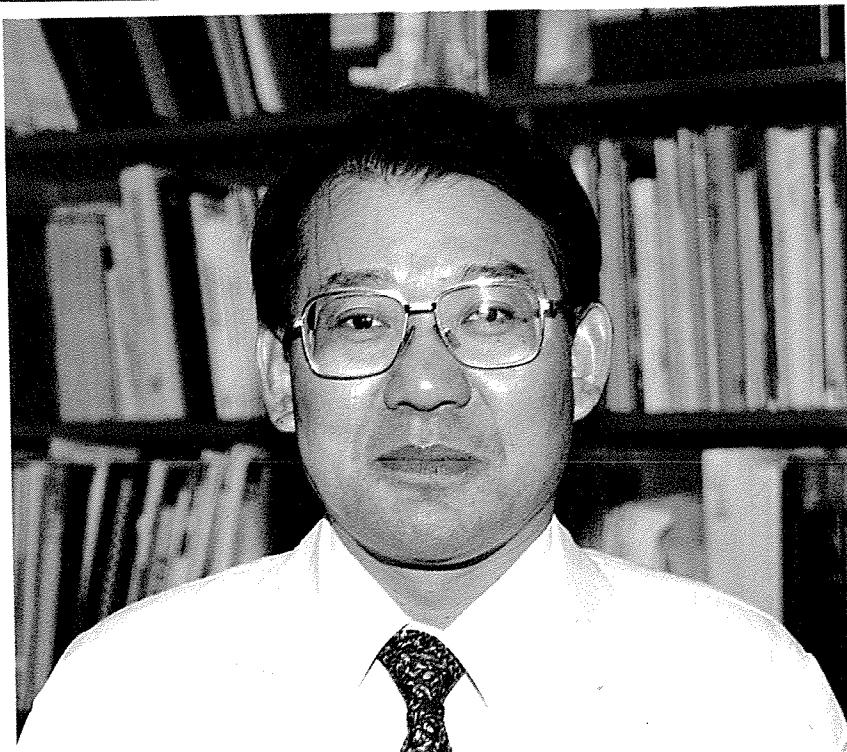
“이 실험에서는 실험동물을 두 가지 군으로 나누어 실험적으로 부비동염을 유발시킨 16마리의 토끼중 닷새후 자연공을 개방한 개방군과, 자연공

폐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 16마리의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폐쇄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히 부비동염 유발후 둘째주와 네째주에 부비동 점막의 병변과 비강 및 부비동내의 분비물의 성상과 양을 분석하고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점막병변과 그 치유과정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주사전자현미경과 투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부비동 점막의 미세구조의 병변을 조사하였습니다.”

약물치료 연구 병행

민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부비동 자연공을 개방하였을 때 부비동 점막

△민양기교수(한국미국펜실베이니아대학 객원교수로 그만한 당시 대비과학(鼻科學)분야의 권위자인 키네디교수와 함께 수술술을 훌륭히 취했다)



◇민양기교수는 기초의학분야의 연구활동이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 병변과 미세조직의 소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전됨에 따라 자연공을 폐쇄하였을 때보다 치유효과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근에는 부비동염(축농증)의 약물치료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중이라고 밝히는 민교수는 우리나라의 의학계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 임상분야의 수준은 선진국의 95%정도의 수준에 달하지만, 임상진료의 기초가 되는 기초의학적 분야의 연구는 선진국 수준의 50%에도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임상진료의 발전에 방향을 둔 기초의학적 연구에 정부, 산업체의 투자가 요망되며, 의학자 자신들의 보다 성의있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중3때 醫學전공 결심

서울출신인 민교수는 6.25동란후 충북 청주시에서 성장하여 의학에 꿈을 두었던 학창시절을 들려주었다.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시절까지 선생님들로부터 성격상 혼자서 해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직업이나 연구직종의 진로가 적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일에 몰두하여 끝까지 결과를 보려는 생활태도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성격탓으로 중학교 3학년 때에 이미 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지요. 이에 따라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업적을 많이 쌓고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명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동대학원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은 민교수는 의과대학 재학중 이비인후과학 분야중에서 비과학분야의 원로인 백만기교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비인후과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발표논문만 1백여편

“그 당시 이비인후과학은 다른 임상학과에 비해 연구,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고 생각되어 장차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직에 남아 이비인후과학의 연구에 열중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중앙대 의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중인 민교수는 「부비동 균치술 후 재생되는 점막의 점액섬모 수송기능과 미세구조」 등 국외학술지에 23편, 국내학술지에 89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비과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제미세수술학회, 미국이비인후과학회, 미국비과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기관식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총무이사, 제12차 국제비강 부비동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부모를 포함해서 전기족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민교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일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면서 ‘회복과 협동’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일러준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개봉관에서 영화감상을 하는 것이 취미라는 민교수는 김명순(46)씨와의 사이에 전영(19)과 수연(16), 세희(11) 1남2녀를 두고 있다.

〈윤원영〉